

## 일부 충성파 경호처 간부, 윤석열 체포에 극렬저항 준비… 맹목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직원들만 피해 우려

- 일부 간부들,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발포까지 검토
- 직원들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데 절대충성을 강조하는 경호처의 특성상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 향후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 추미애)은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화기 소지 때문에 철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같은 안전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이후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군과 경찰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매일 전직원을 소집하고 있으며, 향후 영장 집행시 이들을 인간방패로 활용하여 저항한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로 드러났다. 또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살수차 확보를 추진하였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현재 경호처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 인력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로 소속 직원들과 아직 파견 복귀 명령이 나지 않은 소수의 군병력만 남아 있다. 이들은 상부의 무리한 지시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절대충성을 강조하는 경호처의 특성상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라고 한다. 또한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상이 촬영되자 향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개인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과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정치문제 불개입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가하게 소 풀 뜯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사법절차를 무력으로 파탄내고 있는 극악무도한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시민들의 저항에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철수했던 군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극렬파 간부들이 의무에 없는 불법적인 일을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공무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국방부 차관에게 경호처에 파견되어 있는 소수의 군병력에 대해 파견복귀 명령을 내릴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끝.

※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위원

※ 문의 : 박선원의원실 02-784-3740, 010-3823-1911

더불어  
**민주당**